

코스피지수 1,393.45 (-4.47)

코스닥지수 510.02 (+3.01)

금리(국고채 3년) 3.80% (+0.02)

원·달러 환율 1,277.00원 (+4.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남도의 맛’ 세계화 나선 호남 대표 떡

4 광주 떡 브랜드 ‘예담은’

지역 7개업체 수출 본격화

유산균·초콜릿 떡도 개발

광주 대표 떡 공동브랜드 ‘예담은’이 ‘남도의 맛과 멋, 예를 담은’ 떡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떡이 지녔던 고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니 케이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련된 모습으로 김치·비빔밥·불고기 등과 함께 ‘음식 한류’를 이어갈 메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올 3월에는 썩떡, 인절미, 영양떡 등 8가지 전통떡이 미국 수출길에 올라 뉴욕 등 미국 동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험무대에서 1억 6천만 원의 매출까지 올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잘 굳고 쉽게 변질되는 떡의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수출도 어려웠지만 반가공상태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운반돼 세계 어디에서도 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예담은’은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역 유명 업체들과 함께 광주 떡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떡 공동브랜드다.

창역떡집, 시루연, 떡보의 하루, 해오름, 김정숙의 병과방 등 광주지역 떡 업체 7곳이 참여해 3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가운데

18개 제품이 예담은이란 브랜드를 달고 시판되고 있다.

예담은 브랜드로 팔리는 떡은 창역떡집의 구름떡, 약식떡, 미니기정떡과 시루연이 녹토미로 만든 인절미, 유산균 떡, 초콜릿을 담은 떡, 생과일 설기, 호박시루떡 등이다.

떡보의 하루에서는 흑미·호박·속 등 천연재료로 만든 모듬영양떡을 예담은 브랜드로 내놓았고, 해오름은 쌀 80여가마를 버려가며 시원생산을 거듭한 끝에 특유의 술 맛과 입안에 달라붙지 않는 기정떡이 대표로 예담은 브랜드에 포함됐다.

사업단은 이들 업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포장디자인 개발 ▲떡 시제품 생산과 개발비 지원 ▲떡 포장재 제작 ▲전통 떡 소비확산운동 전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예담은 출발 첫해인 지난 2007년 92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1억원의 연 매출을 기록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참여 업체들의 매장을 통한 판매나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3년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예담은이란 독자 매장을 갖추게 되면 매출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떡산업육성사업단 정금남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해외수출 다변화와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광주지역 떡 생산업체(700여개) 대다수를 예담은이란 공동브랜드로 끌어안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올 1월 광주시 광산구 광주디자인센터 4층에서 창역떡집, 시루연 등 지역 떡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 품평회가 열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참여해 제품 시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기업 협력사 80% “경영난” 호소

중소광주·전남본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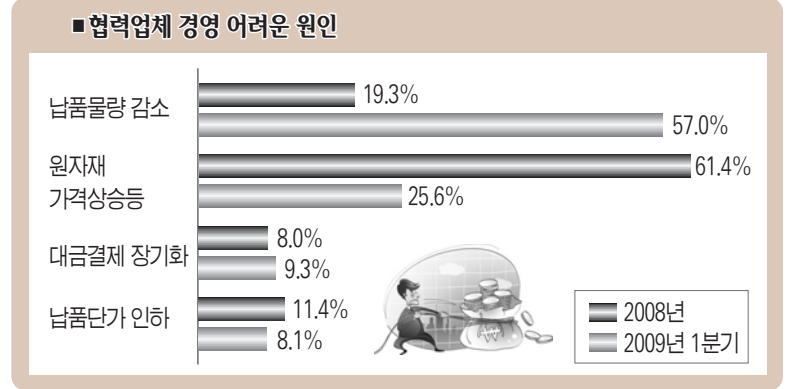
납품 물량 감소가 큰 원인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8곳이 납품물량 감소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력업체 10곳 중 9곳은 지역경제가 위기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6일 내놓은 삼성광주전자·대우캐리어·기아자동차 등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8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여조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협력업체의 80.4%가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조사에서 협력업체들의 72.3%가 ‘어렵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괜찮다’고 답한 협력업체는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을 대기업 납품 물량 감소로 꼽았다. 조사 대상 중 57.0%가 이같이 응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협력업체 가운데 19.3%만이 ‘납품 물량 감소’를 꼽은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



이다. 협력업체들은 이의 ‘원자재 가격상승’(25.6%), ‘대금결제 장기화’(9.3%) 등을 경영난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협력업체들의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91.9%는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20% 이상 줄어든 협력업체도 5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감소한 업체도 18.4%나 됐고 외상 구입대금 지급 기입을 한 달 이상 넘기는 경우도 32.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매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업체 가운데 19.3%만이 ‘납품 물량 감소’를 꼽은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

연되는 업체(22.0%) 등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31.3%)을 가장 많이 들였고 ‘직원임금삭감 및 인력감원’(17.7%), ‘거래처 다변화’(16.1%), ‘대기업에 기존물량 증대요구’(12.0%) 등을 꼽았다.

또 정부·당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38.4%)을 비롯,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원확대’(22.0%), ‘자동차·가전 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19.2%), ‘지역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10.7%)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지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쏘울’ TV광고

美 ‘좋은 광고상’ 수상

기아차는 미국에서 방송 중인 ‘쏘울’의 TV 광고가 동물권익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시민모임’(PETA)으로부터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지지자를 보유한 PETA는 해마다 동물이 등장하는 광고 중 동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담은 광고를 선정, 좋은 광고상을 시상하고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광고는 ‘나쁜 광고상’(Baddy Award)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쏘울 광고는 헛바퀴를 돌고 있는 햄스터들 사이에서 한 햄스터 가족이 쏘울을 타고 유유히 거리를 질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 동물을 촬영에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사전에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쌍촌동 시대 마감

11일 지방합동청사로 이전

광주지방국세청이 오는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면서 26년간의 서구 쌍촌동 시대 ‘사진’을 마감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정부광주청사 사무실 중 12~17층까지 6개층

을 사용, 입주 기관 가운데 사용공간이 가장 넓고 근무 인력도 270여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1983년부터 26년간 업무를 봐온 현 쌍촌동 청사에는 서광주세무서가 이전하고 서광주세무서는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작년 신규소득자 150만명 유가환급금

내달 1일까지 접수... 최대 24만원 지급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세로 채운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

천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 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연합뉴스

aT·한국전통음식연구소

‘세계 떡산업 박람회’ 개최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한국전통음식연구소는 8~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7회 떡의 날, 2009 세계 떡 산업 박람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떡! 우리 먹을거리! 세계로! 세계로!’를 주제로 60여개 떡 관련업체들이 참가해 전국 팔도의 향토떡 등 200여종의 떡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a model house and a building for sale.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It list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a building for sale and a house for sale.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Certified Real Estate Agent).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a building for sale and a house for sale.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The One' (TheOne) featuring a world-class MBA graduate and a career expert. The ad promotes a career counseling service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더원 by (주)행복출발' (TheOne by (Inc.) Happy Start). It also mentions a 'Hi-Save' service and a website 'www.theone.co.kr'.